

진로상담이 Parsons(1909)에 의해 개인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체계적인 이론을 제안된 이후 개인 특성, 직업적 특성은 물론 진로와 관련된 요인인 진로결정, 진로장애,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사결정유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최근 대학상담실을 찾는 대학생들의 주요한 문제가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 후 진로 등 진로선택 및 결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장선량, 김혜영, 2004) 또한 대학시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기 및 선택기로 볼 때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진로상담자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진로상담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진행되고 있다(이은진, 2001).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2).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 진로장애 등의 다양한 개념이 도입되어 연구되어왔다. 지각된 진로장애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수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외적인 요인들을 말한다(Swanson & Woitke, 1997). 김선중(2005)에 의하면 진로장애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진로발달에 있어서 갈등과 혼선을 가져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이러한 자신감의 저하는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 자체를 회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수준 역시 진로장애에 대한 인

식에 의해서 저하된다(이성식, 2007).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은령(200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애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집단, 중간집단, 진로미결정집단으로 나누어 진로장애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장애를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연미(2002)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집단과 진로미결정집단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진로장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wanson, Daniels와 Toker(1996)의 연구와 Shuttleworth(1992; 서유진, 2007에서 재인용) 연구에서는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Lee(1994)의 연구에서도 외적인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관계가 전공계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외적인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경우와 진로결정수준이 오히려 높은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들을 보고하고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관계를 단순히 선형관계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두 변인 사이에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여대생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연구도구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Luzzo

(1997),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지역, 전공계열, 연구도구 차이에 관계없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손은령(2002),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연구도구 차이보다는 두 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또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지각된 진로장애를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장애로 지각되지만 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매개변인으로 고려되는 변인으로는 먼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Hackett와 Betz(1981)가 자기효능감을 처음으로 진로심리학에 소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또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이다.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은영(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로탐색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했다. 김선중(2005) 또한 남·여 대학생 모두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Luzzo(199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낮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진로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과정과 진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주(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진로미결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진로미결정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성식(2007)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했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다.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매개변인으로 낙관성을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성을 미래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정의하고 이를 성향적 낙관성이라고 하였다. 낙관성은 시간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이러한 낙관성은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특히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았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목표 획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ier & Carver, 1992). Helton, Dember, Warm, Matthews(2000)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자신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적고 행복을 더 적게 느끼는 반면 긴장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낙관성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낙관성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기력 상태를 잘 이겨내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특징을 가진다(김혜정, 2003). 따라서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낙관성이라는 성향을 통해 진로결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관성이 내적 성향을 나타내는 기질요인으로 변인들 사이에 중재효과(이창주, 2007)와 매개효과(이지연, 2006)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지각된 진로장애와 낙관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유진(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애와 낙관성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 모두에서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희(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권혜경, 이희경(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 학교적응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했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유진(2007)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최영순(2006)은 중학생을 대상으

로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발견했다. 낙관성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낙관성이 높은 집단이 낙관성이 중간,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eed, Patton, Bartrum(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 계획과 탐색을 더 많이 하며 진로결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낙관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낙관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상희(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했다. 또한 낙관성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희(2006) 연구 외에 낙관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낙관성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필기(2003)의 연구가 있다. 김필기(2003)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낙관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관계에서 두 변인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낙관성을 설정하고 이들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낙관성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대상

광주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2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283명 중 남자는 159명(56.2%), 여자는 124명(43.8%)이었고 1학년 81(28.6%), 2학년 73(25.8%), 3학년 57(20.1%), 4학년 72(25.5%), 평균연령은 23.35세($SD = 2.23$)이었다.

도구

진로장애 검사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부족, 외적장애의 5개 하위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12, 직업정보부족 .875, 자기명확성부족 .854, 우유부단한 성격 .855, 필요성인식부

족 .804, 외적장애가 .78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

Betz, Klein과 Taylor(1996)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확신이 없다(0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9점)’의 10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932, 직업정보수집 .710, 목표설정 .775, 계획수립 .762, 문제해결 .719, 자기평가 .793로 나타났다.

낙관성 검사

Scheier, Carver와 Bridge(1994)가 제작한 삶의 정향 평가지(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낙관성 및 비관성 측정 문항과 낙관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4개의 모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모호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1, 낙관성 .779, 비관성 .766이었다.

진로결정수준 검사

Osipow(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

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2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93,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851, 교육과 진로결정 .88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낙관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검증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낙관

성의 매개효과,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낙관성, 진로결정수준 및 그 하위요인들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 진로결정수준 및 그 하위요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 R^2 가 0.01~0.4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2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모형을 살펴보았다.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변수 간 관계 모형 계수 및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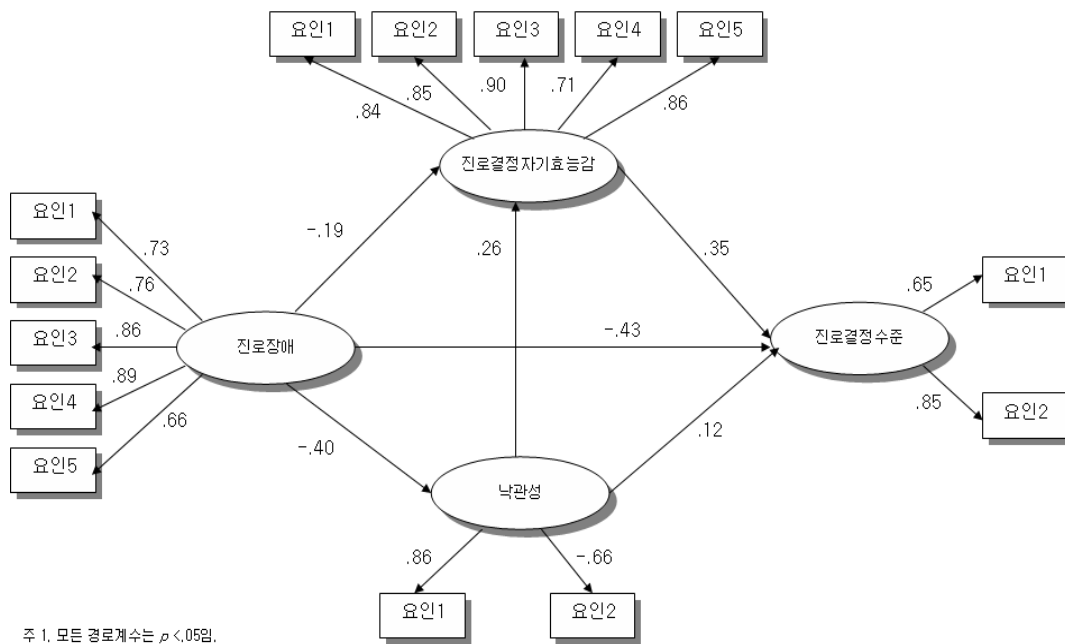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모든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의 부분 매개모델에서의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진로장애는 진로결정자

표 1.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

	1	2	3	4
1. 지각된 진로장애	-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17***	-		
3. 낙관성	-.330***	.304***	-	
4. 진로결정수준	-.428***	.357***	.310***	-

주. *** $p < .001$.



주 1. 모든 경로계수는 $p < .05$ 임.
 주 2. 진로장애
 요인1: 직업정보부족/ 요인2: 자기명확성부족/ 요인3: 무유부단한 성격/ 요인4: 필요성 인식부족/ 요인5: 외적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1: 직업정보수집/ 요인2: 목표설정/ 요인3: 계획수립/ 요인4: 문제해결/ 요인5: 자기평가
 낙관성
 요인1: 낙관성/ 요인2: 비관성
 진로결정수준
 요인1: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요인2: 교육과 진로결정

그림 1.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낙관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표 2. 부분 매개모델에서 변수 간 관계 검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진로장애→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	.12	-.19	-2.8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수준	.43	.11	.35	3.99***
진로장애→낙관성	-.59	.13	-.40	-4.51***
낙관성→진로결정수준	.31	.12	.12	2.64**
낙관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	.39	.10	.26	3.41***
진로장애→진로결정수준	-.67	.14	-.43	-4.79***

주. ** $p < .01$. *** $p < .001$.

기효능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19, t = -2.81, p < .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t = 3.99$,

$p < .01$). 또한 지각된 진로장애는 낙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40, t = -4.51, p < .001$), 낙관성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t = 2.64, p < .01$). 낙관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6, t = 3.41, p < .001$), 지각된 진로장애는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3, t = -4.79, p < .001$).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매개하는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증 중 Aroian 검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검증결과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Z = -2.25, p < .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Z = -2.21, p < .05$ 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Z = 2.19, p < .0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구조모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량의 4%, 낙관성 변량의 16%, 진로결정수준 변량의 24%를 설명하고 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hi^2 = 996.127, df = 71, p < .001, \chi^2$ 값은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권장되는 적합도 TLI = .956, CFI = .989로 기준치인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 .07로 .08보

다 작게 나타나 요인구조가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부분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증 결과, 제시된 6개의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낮추어 진로결정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낙관성을 낮추어 진로결정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검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진로장애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김은영(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Luzzo(1997) 또한 멕시코 미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이명숙(2003)은 본 연구의 예언변인, 종속변인과 다르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진로장애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유의미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명숙(2003)의 연구는 단순히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방향을 밝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김은영(2001), Luzzo(1997) 등의 연구처럼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각된 진로장애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주옥(2004)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Hackett와 Betz(1981)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론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돕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애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성식(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손은령(2001)

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진로결정집단이 중간집단, 진로미결정집단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장애를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음을 밝힌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Swanson, Daniels와 Toker(1996)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나, Lee(1994)의 연구에서 보여준 전공계열별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일치하지 않은 결과는 본 연구와 다르다. 그 이유는 먼저 Swanson, Daniels와 Toker(1996)의 연구와 Lee(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수준 척도가 본 연구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측정 도구의 차이는 변인의 다른 정의에서 시작하므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변인들의 하위요인의 차이가 생겨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연구에서는 지각된 외적 장애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성 인식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등 내적 장애요인이 외적 장애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어떠한 진로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사이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여준 이성식(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지각된 진로장

애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면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애의 종류나 다양한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진로상담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황미은(200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시야를 확장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독서치료적 접근을 제안하였으며, 김남진(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을 통해 자기이해와 정보탐색과 행동계획 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독서치료,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실천적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진로장애는 낙관성에 영향을 주고 낙관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진(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진로장애가 낮음을 발견했다. 또한 낙관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Scheier와 Carver(1985)가 낙관성이란 미래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주장한 것처럼 낙관성이 부정적인 요인인 지각된 진로장애를 낮추고 긍정적인 요인인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희(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장애가 -.39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낙관성이 진로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 진로장애가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낙관성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관성은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장한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김선중(2005)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준비행동에 희망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낙관성이라는 긍정적 변인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장시켜주었다. 또한 진로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가 내적 요인일 경우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낙관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각된 진로장애가 외적 요인일 경우에는 낙관성의 향상이 지각된 진로장애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상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낙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장옥란(200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ABC 모델을 활용한 인지적 접근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 결과 낙관성이 향상됐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낙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지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

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낙관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상희(2006)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낙관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낙관성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상담을 돕기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자료를 상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로상담은 기존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적성 및 성격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소개, 정보를 찾는 방법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들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진로결정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 등 개인 내적 성향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내적인 성향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대학생들의 주요한 고민거리인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 후 진로 등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상관분석을 통해 그 관계여부만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 그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셋째,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매개하는 요인임을 밝혔다라는 점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인 낙관성의 역할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낙관성이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매개역할을 하며 또한 낙관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낙관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 대학생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적·학문적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대학생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도구 문제를 들 수 있다. 연구자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 진로결정수준 검사 등은 오래 전에 제작된 도구로 진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요인을 검사 도구들이 충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진로 개념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최근에 개발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예언변인들이 심리적인 변인들에 치중하여 실제로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상황조건을 통한 실험연구를 통해 그

인과관계 및 실제적인 영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낙관성을 높이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남진 (2003).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필기 (2003). 여중생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울, 학습된 무기력, 자기 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3).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미 (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주 (2007). 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낙관성의 역할.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38(1), 235

- 257.
- 장선량, 김혜영 (2004). 2004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2, 141-162.
- 장옥란 (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순 (2006). 중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은 (2007). 도서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173-1182.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42-61.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8, 326-339.
- Helton, W. S., Dember, W. N., Warm, J. S., & Matthews, G. (2000). Optimism, pessimism, and false failure feedback: Effects on vigilance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18, 311-322.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Osipow, S. H. (1980). *Manual for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 M. W.

-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er, K.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원고접수일 : 2008. 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5
게재결정일 : 2008. 5. 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Optimism

Min Jeo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optimism ma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s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in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structural model of a partially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hypothesized and tes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s. Second, a structural model of a partially mediating role of optimism was hypothesized and tes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s. Third a structural model of a partially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hypothesized and tes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career decision level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that the variables regarding career decision levels investigated may be able to be used to create a model to help college students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es. However, the primary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e lack of an immediat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ults to the fields of either education or counseling.

Key words :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ptimism, career decision levels*